

정부 첨단업종 대폭 확대땐 '수도권 쏠림' 불보듯

10년 공들인 광주 전략산업 고사 위기

김재균 의원 지적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으로 10여년동안 키워왔던 광주의 전략산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민주당 김재균 의원(광주 북을)에 따르면 최근 지식경제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전제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첨단업종을 현재 99개 업종·156개 품목에서 92개 업종·265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 중 신규 추가된 품목은 27개 업종·63개 품목이며, 나머지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세분화 했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 발전 및 수도권 과밀 해소 등을 위해 제한하고 있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등이 대폭 완화돼,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있다하더라도 공장 시설 용지 면적의 2배까지 증설이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유치는 불가능해지고 오히려 지방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경제의 고사가 우려된다.

특히 새로 추가된 첨단업종 63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광주의 주력산업인 광산업과 자동차·가전·금형산업 관련 품목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1300여 관련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광산업의 경우 LED광소자, 태양전지, 터치센서, 광학렌즈 등 상당수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지난 10여년간 중점 육성해 자리잡은 360여 광산업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도 첨단업종을 확대할 경우 수도권 쏠림을 우려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내부보고서인 '산업집

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참고자료'에는 "첨단업종에 포함된 성장유망 업종의 수도권 내 투자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혀고 있다.

실제 첨단업종에 포함된 기업 중 현대모비스는 태양전지 등에 500억 원, KCC는 새시모듈에 2조원, 프레스코리아는 초고순도 질소가스에 1180억원 등 수도권에 신규 투자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균 의원은 "+5+광역경제권 호남권 선도산업인 LED산업을 대구·경북으로 나눠주더니 이제는 수도권에까지 규제를 완화하고자 한다"며 "신규로 추가된 첨단업종 63개 품목 가운데 광주 주력산업과 중복되는 품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제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숙기자 jwpark@kwangju.co.kr

삼부토건 법정관리 신청

PF대출금 만기 연장 못해

삼부토건이 13일 만기 도래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체권금융회사들로 구성된 대주단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삼부토건에 대해 채권주식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주단은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과다한 지급보증에 따른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만기

가 도래한 PF 대출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자 이날 서울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 회사는 작년 기준으로 도급순위 34위의 건설회사다. 법원은 삼부토건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

삼부토건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재무변제를 할 수 없고 이 회사에 대한 가압류나 거래분, 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표자 심문과 현장 겸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美 시장 승자 현대·기아차

포춘誌 전망

현대·기아차가 올해 미국 자동차시장의 승자가 될 것이라고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이 전망했다.

포춘에 따르면 이 합자는 2011년 불과 석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일본의 대진전에 따른 자동차 생산 차질, 중국 정정 불안으로 인한 석유 가격의 급등, 하이브리드 전기차 개발 경쟁 등으로 이미 자동차 시장에 커다란 격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환경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면서 선전하고 있는 승자와 그렇지 못한 패자를 선정했다.

이 합자는 현대·기아차를 도로공사용 증기 톤리너 '스팀롤러(steamroller)'라는 별명을 붙이면서 앞도적인 기세로 미국 시장을 과고들고 있는 점을 들어 올해 미국 자동차 시장의 승자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연합뉴스

앞서 대주단은 이날 시공사인 삼부토건 및 동양건설산업과 13일 만기가 돌아오는 서울 내곡동 현인미도 도시개발사업의 PF 대출 4270억원에 대해 만기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대주단은 우리은행 등 총 20개 금융회사들로 구성됐다.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은 종전처럼 PF 대출의 만기와 자동 연장해달라고 은행들에 요구했다. 반면 대주단은 대출 만기와 연장하기 위해 선일정한 담보를 내놔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연합뉴스

1기 부가세 예정신고·납부 25일까지

대상자는 116만명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를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116만명이며, 이중 법인사업자가 53만명, 개인사업자가 63만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2만명 증가했다.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
신고는 일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cardrotax.kr)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폐업자에 대한 신고·납부기한도

변경돼 종전에는 '폐업일부터 25일 이내'였으나, 올해부터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로

바뀌었다.

/연합뉴스

기준금리 동결…현행 3.0% 유지

금통위 "내달부터 물가 상승률 둔화할 것"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12일 김종수 총재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기준금리를 현행대로 연 3.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달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준금리가 연 3%대에 진입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무엇보다 지난해부터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가 '정점'에 달해 내달부터는 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라고 판단한 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대지진, 중동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 중국의 긴축정책 강화 등 주변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앞서 지난 8일 한은도 2011년 3월 종 생산자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7.3%나 올라 2008년 11월의 7.8% 이후 28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전방위 물가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물가가 여상을 뛰어넘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소비자들 사이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빠르게 번지고 있어 금통위가 내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3월 수입원자재 가격지수

31개월 만에 최고

지난달 수입원자재 가격지수가 2008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수입협회(KOIMA)가 12일 발표한 3월 수입원자재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코이마(KOIMA)지수는 2월보다 9.54 오른 382.98 포인트를 기록해 2008년 8월(411.34) 이래 31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KOIMA지수는 농산물, 광산물, 철강재, 유화원료 등 각 분야의 대표적 수입 원자재 56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다.

56개 품목 가운데 24개의 가격이 상승했고 23개는 하락, 9개는 보합세를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 보면 고유가 및 인플레이션 우려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은(16.34%)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양가죽(13.3%), 나프타(9.5%), 원유(9.37%) 등도 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부문별 지수를 살펴본 결과 중동 지역의 정정 불안에 따른 우려감이 확산하면서 원유를 비롯해 금, 은 등이 포함된 광산품(5.63%)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연합뉴스



中企 지원 한도액 늘려 달라

한은 개최 광주·전남 중기대표자회의 열띤 토론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12일 관내 중소기업 대표자, 금융기관 지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부 회의실에서 '광주·전남 지역 중소기업 대표자회의(사진)'를 개최했다.

장택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이번 회의가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제기된 의견과 견의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7억원(전략 산업 14억원)인 업체당 지원한도액을 증액과 지원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또한 전자부품 제조업, 금형산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광

(光)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에 대해 공감하고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모색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협보를 당부했다.

장택규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이번 회의가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중소기업 지원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제기된 의견과 견의사항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코스피지수	2,089.40 (-3.29)
코스닥지수	525.11 (-8.00)
금리 (국고채 3년)	3.72% (-0.06)
원·달러 환율	1,093.60원 (+9.3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봇이나 틀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치자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 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ENG, 이엔지 방수, 비단재 전문생산업체
이엔지 미화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 를 꼭 확인하세요...

원적외선 방사 웨빙기 출시

웨빙기 1대 설치로 1석 3조 효과(효도상품)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웨빙

▪ 조명 및 전자제품에서 방사된 원적외선은 친환경과 인체 신진대사 및 경락 순환에 탁월함.

▪ 학생 공부방 스텐트 조명기구에서 원적외선 방사

▪ 조도 3~4%이상, 실내공기 정화

▪ 몸의 컨디션 향상

▪ 공부 집중력 향상

▪ 전기베트에 원적외선 방사로 전자파 중화 및 치료효과 탁월

▪ 병원 물리 치료실과 사우나실의 원적외선 기기 활용

▪ 온열요법 중 가장 강한 열작용으로 어깨 뻐근함과 근육 피로해소

▪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영양공급 균형유지

▪ 인체 적정 수분 유지

▪ 노폐물, 독소 배출 촉진 및 낸새 중화

▪ 광택있는 젊은 피부생효과(피부속 불순물, 화장품 찌거기 배